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성령님>은 ‘천모’ 이시고 ‘여성 신’ 이시지만, 여자가 할 일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남자가 할 일도 가르쳐 주신다.
2. 성령님은 ‘여성 신’ 이시지만, ‘여자에 대한 말씀’ 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도 가르쳐 주신다. 고로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전달하시며 명령도 하신다. 그리고 감동을 주시어 행하게 하신다. 행치 않으면, 성령을 거역한 것이 되어 성령께서 직접 그에 해당되는 대가를 주신다.
3.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세밀한 것’ 까지 말씀해 주신다.
4. <성령님>은 ‘성령의 말씀을 들은 자, 그 행하심을 본 자의 입’ 을 통해 거침없이 말씀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며 지적도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 을 무섭게 칼날같이 생각을 안 한다. 고로 그때만 조금 깨닫다가 만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거스르지 못하게 나 성령이 직접 말씀을 하노라.” 하셨다.
5. <성령님>은 ‘지도자들이 행할 것’ 을 가르쳐 주신다. 특히 <교회를 맡아서 책임지고 이끄는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섭리사 신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엄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6. 특히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잘해야 된다. 철저히 계획하고, 분석하고, 노력하고 서로 하나 돼서 뛰어야 된다. 모순이 있어서 본인을 통해 깨우쳐 줬는데도 모르고 계속 하면, 그때는 교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다.
7. <성령>이 ‘교인들’을 통해 말씀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때는 ‘주’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다.
8. <자기>를 위한 기도를 전적으로 할 때, 자기 모순을 깨우쳐 주신다.
9. <정상>에서 벗어나면, ‘건강’도 이상이 생긴다.
10. <신앙>도 ‘정상’에서 벗어나면, 병에 걸린다. 고장이 난 것이다.
11. 지금은 <주>가 설교하는 고로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지 않으니, ‘생각, 방향’을 달리 해야 된다.
12. 전에는 <목회자들>이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새벽 설교’를 하느라 설교에 매여 정말 바빴다. 그때는 금식도 하고, 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제스처 연습을 하고, 목소리 연습을 하느라 바빠서 밥을 해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며 편지가 많이 왔다. 그러니 교인들을 시켜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을 못 가니 교인들이 대신 시장을 봐다가 냉장고에 채워 놓기도 하고, 일주일

치를 사다 채워놓기도 했다. 그때는 목회자가 바쁘니 그리 해주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그때는 목회자들이 바쁘니 3명, 4명, 5명씩 시중드는 자를 두고 자기를 돕게 했다. 고로 ‘조은 목사는 맡은 교회가 크니, 옆에 시중드는 자가 많겠다.’ 하고 가서 보니, 시중드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선생이 철저히 가르친 대로였다. 지금은 <주>가 설교를 다 하니, 예전처럼 누가 밥을 안 해 줘도 되고, 대신 냉장고를 채워 주지 않아도 된다. 목회자들 중에 이 선(線)을 넘은 자들이 있으면, 오늘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라.

13. <홀로 서기>다. <하나님과 서기>, <성령님과 서기>, <주와 서기>다. 지금은 때가 때이니 만큼, 이와 같이 해 나가야 된다.

14. <목회자들>은 본인이 부지런히 뛰고 달려야 된다.

15. 선생도 수종자를 두지 않는다. 10년 동안 모든 것을 혼자 했기 때문에 지금도 혼자 한다.

16. 가령 배구할 때 불이 오면, 혼자 불을 때려야지 두 명이 불을 때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수종자를 두지 말고 혼자 하는 것이다.

17. <전도한 자>에게 심부름시키며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 이다.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시중을 드는 자가 아니면, 휴거가 안

된다.

19. <하나님 시중>, <성령님 시중>, <주님 시중>이다.

◎ 기도하겠습니다.